



보도자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보도일시	2022. 1. 9(일)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도천수
담당자	전석규 팀장 / 010-2733-6817	담당자	위원장 / 010-2363-9816
		E-mail	koreavision@hanmail.net
사진	0	영상	X 기타 첨부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7일, 시민사회위원회 출범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시민사회위원회가 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사회종교 각 영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온 공평코리아 공동대표 도천수, 김후식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효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회장, 김동원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 이재명 후보는 서면측사에서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공에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가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 도천수 상임위원장은 “새로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4기 민주정부가 되어야 한다. 양극화 사회, 저성장·고령화 사회, 분단시대에 머물러있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켜 민주개혁 정부를 탄생시키고, 공평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촛불 민주시민의 힘을 다시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했다.
- 시민사회위원회는 산하에 공평국가본부(구석모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일할권리보장본부(양재덕 인천실업극복운동부장 이사장), 촛불정신계승본부(김후식 전 5·18부상자회 회장), 희망나눔본부(안병원 전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 등 네 개의 부문 조직을 구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고문단에는 배다지 민족광장 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신흥우 나라사랑국민협의회 회장,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양성호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7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끝)

[첨부] 행사 사진

